

국내 우수 고구마 신품종 수출 총력 지원

농진청 권재한 청장, 김제 공덕농협 찾아 고구마 가공·수출 등 현장 살펴

최근 이상기상이 반복되고 병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고구마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속된 폭염과 강우 부족으로 고구마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상기상에서도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고구마 신품종을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신기술시험사업과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자체와 협업체 바이오스 무병묘 보급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호풍미'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상에서도 타 품종보다 안정적인 수확량을 보여 보급 3년 만에 국내 재배면적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호박고구마 주산지인 충남 당진에서는 '호풍미'를 지역 대표 품종으로 선정해 지역 상표 '당진호풍'을 붙여 확대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에이(CA) 컨테이너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8일 김제시 공덕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를 방문해 고구마 재배·유통·수출 관련 어려움을 듣고,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를 이용한 태국 시범 수출을 통해 고구마 수출 시 부패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시에이(CA) 컨테이너를 활용하면 냉장 컨테이너 선박 수출 대비 물류비는 2.6배 증가하나 부패율을 약 30% 줄일 수 있어

19%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

2024년에는 김제 공덕농협을 지역 수출 유망단지 지정하고, 고구마 수출 규격품 생산을 위한 병해 예방 등 재배관리 교육과 수출 관련 문제 해결 협의회 운영 등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덕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를 방문해 고구마 재배·유통·수출 관련 어려움을 듣고,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권 청장은 "고구마는 연중 저장, 출하가 가능하고 농가소득도 높은 작물이다"라며 "품질과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고구마 품종을 신속히 보급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품종별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바이오스 무병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윤리 권 청장은 "선도유지 기술을 활용해 국내 우수 품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며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를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00만 회원 달성을 기념하여 전국 5개 권역회원들이 지역 별 걷기대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강원권 걷기대회. (사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공)

'100만 회원 달성 기념 화합 도모'

건설 기술인협, 12일 전라권 건설애 희망 걷기대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운영구, 이하 협회)는 100만 회원 달성을 기념하여 전국 5개 권역(서울권·충청·강원·경상·전라) 회원들이 지역 별 걷기대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 중이다.

협회는 지난 5월 25일 서울권(관악산 둘레길)을 시작으로 7월 6일 충청권(계족산 황톳길), 8월 24일 강원권(불개말구구리길), 9월 21일 경상권(봉무공원둘레길) 걷기대회에 이어, 전라권 건설애 희망 걷기대회가 오는 12일 내장저수지 둘레길(정읍시 내장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라권 거주 건설기술인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앞으로 회원 소통의 장으로 매달하고 있는 건설애 희망 걷기대회를 수도권(10월 26일)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 행사는 협회가 올해로 회원 수 100만을 돌파한 기념 행사로, "Breakthrough WITH Engineers" 슬로건으로 수원 화성에서 약 1,000명이 참석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살기 좋고 쾌적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조성 위한 마중물'

농어촌소,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정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은 정부의 농촌공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기관으로 금년도 3월 부터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담부서인 농어촌계획부 내에 KRRC전북지역개발센터,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등 2개의 전문센터와 3개의 농촌계획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센터는 시·군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등 지역 현안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계획팀은 도내에서 시행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조직력을 인정받아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광역지원기관의 주요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도내 13개 시·군이 수립하게 될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지역협의체의 구축·운영 지원, 현장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행 등으로 정부의 농촌공간 정책이 시·군에 체계적으로 정착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이정문 전북지역본부장은 현재 관련법이 시행 초기 단계로서 제도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사가 그동안 쌓아온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조직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군별 고유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과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전 진안지사, 홍삼축제 행사장서 고객만족센터 운영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사(지사장 서재환)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24 진안홍삼축제'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한전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했다.

한전 진안지사는 행사장을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AR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안전한 전기 사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렸다.

또한 전기사용 관련 각종 상담 및



한전ON(전기사용고객 모바일 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여 편하고 안전한 전기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한전에서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사전에 축제 행사장과 고원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 점검도 시행했다.

한전 진안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행사에 적극 지원 및 참여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전기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

웹 접근성 보장... 사회적 약자·정보 격차 해소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품질인증 공공기관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지난 5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웹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시각·청각·지체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도 웹 콘텐츠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진원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33개의 검사항목을 개발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웹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여 사회



적 약자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웹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웹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여 정보 약자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